9일 Market Index
코스피 3260.05 (+40.46)
코스닥 824.82 (+6.22)
금리(국고채 3년) 2.425 (-0.023)
환율(원·달러) 1388.90 (-1.70)

metro® 경제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 땡겨요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소비쿠폰으로 내수 활성화 불씨, 美 통상압력 방어 성과

이재명 정부 100일

2차 추경편성, 내수진작
소비쿠폰 8.9조 지급으로
소상공인 카드매출 6.4%↑

"산업재해 안줄면 직 걸라"
산재·임금체불 근절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직후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내수 진작 등을 꾀했다. 또 미국의 관세 협상 시한이 촉박함에도 15%로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소년공'이었던 정체성에 맞게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근절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월4일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2일 국민 97.6%(4837만명)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액수로 따지면 약 8조9000억원 정도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후 4주간(7월21일~8월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2만9154곳의 카드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평균 6.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정책은 일회성으로, 내수 회복세를 안착시키려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청년층 취업 방안,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또 정부는 지난 7월31일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했으나, 이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협상에 총력을 다한 결과, 일본·유럽연합(EU)와 동일한 15%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관세 협상과 함께 미국에 투자·산업협력 등 성과도 함께 거뒀다.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 방어 역시 성과로 꼽힌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협상 내용이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행 조치도 확정되지 않았다. 거기에다 미국 측 행정명령 발효가 늦어지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뉴 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협상'하는 것이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번 협상이 타결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세부 내역 역시 치열한 난상 토론을 벌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행정 절차 속행 역시 협상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남은 과제는 합의사항을 공식 문서로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막아내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보수진영 정부뿐 아니라 민주진영 정부와도 다른 특징이 있다.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공장 노동자로 살았던 이력이 있어서인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대해 특히 강경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지시할 정도로 산재 사망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또 임금체불을 '중대한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8일)에도 사업장 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다.

다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통과 등으로 재계의 비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물류&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물류&모빌리티 포럼'이 올해로 어느덧 10년째를 맞이합니다. 그 사이 물류·모빌리티 산업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동'이 공통분모인 이들 산업의 앞으로 10년은 더욱 빠르게 진화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더욱 스마트해지는 기술은 사람과 물건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간과 공간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연결', '친환경', '공존', '안전'은 핵심이 될 것입니다.

10회를 맞는 올해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선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는 의미로 세상에 선보인 기아자동차의 PBV(Platform Beyond Vehicle)의 탄생 배경과 혁신적인 제품이 그리는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려 합니다.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기업의 비지니스 그 중간을 공략하는 기아 PBV는 바로 물류와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융합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선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자율주행으로 심야시간 서울 강남을 누비고 있는 로보택시, 그리고 중소 제약사들이 협력해 만든 혁신적인 물류 풀필먼트 시스템의 도전기를 듣는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 주 제 :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 일 시 : 2025년 9월24일(수) 14:00~17:00(내빈 티타임 13:4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문의·참가신청 : 2025 물류&모빌리티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metro

현대차·기아, 유럽서 '소형 전기차' 드라이브

獨 'IAA 모빌리티 2025' 참가
아이오닉 콘셉트카 최초 공개

수입차 고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으로 미국발 악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유럽시장은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성장중이며 현대차·기아가 상반기 10만대를 판매하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연간 20만대 판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최대 모빌리티쇼 'IAA 모빌리티 2025'에서 아이오닉의 첫 소형 전기차 콘셉트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유럽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소형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이날 공개한 '콘셉트 쓰리'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소형 EV 콘셉트카로, 해치백 형태의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갖췄다.

현대차는 2019년 준중형 EV 콘셉트카 '45', 2020년 중형 EV 콘셉트카 '프로페시(Prophecy)', 2021년 대형 EV 콘셉트카 '세븐(SEVEN)' 등을 공개한 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을 차례로 출시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준중형, 중형, 대형 차급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왔다.

이번 콘셉트 쓰리는 차별화된 소형 EV를 통해 아이오닉 라인업을 소형 차급까지 확장하겠다는 현대차의 비전을 담은 모델이다. '콘셉트 쓰리'는 공기역학적 성능을 강조한 해치백 디자인인 '에어로 해치'가 적용됐으며, 소형 EV임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갖춰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콘셉트 쓰리는 소재가 지닌 아름다움을 강조한 실내 디자인을 통해 탑승자가 신체적·정서적 편안함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우선 시트, 도어 트림, 콘솔, 대시보드 등은 소재 고유의 질감과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공간을 감싸는 형태로 디자인해 가구처럼 안락한 느낌을 구현했다.

현대차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빠르고 해치백 차량에 대한 수요가 큰 유럽 시장에서 이번 콘셉트카를 최초 공개함으로써 아이오닉 브랜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는 하반기부터 유럽에서 준중형 전기차 EV4 판매에 집중하고, 내년엔 콤팩트 전기 SUV EV2를 출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는 유럽에 출시하는 소형 전기차 신차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등 현지 공략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바이오, 1.8조 초대형 계약

美 제약사와 CMO 계약 체결
올해 누적 수주액 5조 돌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다시 2조원에 가까운 초대형 위탁생산(CMO) 계약을 따냈다.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은 5조원을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월 29일 미국 소재 제약사와 1조8001억원 규모의 의약품 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공시했다. 해당 계약 규모는 지난해 연간 매출의 40%에 달한다. 계약 상대, 제품명 등은 경영상 비밀유지를 사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들어 기록한 누적 수주 금액은 총 5조243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주 금액 5조4035억원의 97%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만 초대형 수주를 두 건 올린 성과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유럽 제약사와 2조747억원의 계약을 맺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성과를 거뒀다. 이후에도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 다수의 신규 계약이 이어졌고 현재 창립 이래 누적 수주 총액도 200억달러를 돌파했다.

국내외 경기 침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에서 시장 환경과 사업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형 계약을 통해 기업 영향력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2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

메트로 한줄뉴스

▲李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56.0%…'잘못한다' 39.2%
▲李대통령,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위철환 변호사 지명

▲국힘 법사위원들, 헌재에 '더 센 특검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권성동, 李 필리핀 차관사업 중지 명령에 "정적 죽이기"
/사진 뉴시스

▲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 재개…대미 투자기업 비자 문제도 언급
▲中서 열린 北 9·9절 행사에 전인대 부위원장 2년 만에 참석